

# 특허의 상품화, 그 현실과 대책

한 건의 발명특허가 탄생되는데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특허의 死藏化.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할 방도는 없는지 원인과 대책, 실태를 분석해 본다.

## 百三當으로 통하는 특허

세계 특허계에는 '百三當'이라는 희귀한 말이 유행하고 있다.

특허(산업재산권으로 총칭되며, 이는 다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로 분류됨)는 1백건 중 3건 정도만 商品化되며 나머지는 사장된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말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발명을 하여 등록을 받은 특허가 겨우 3%밖에 상품화되지 못하고 97%가 사장된다면 이는 실로 충격도 驚天動地할 대 충격이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누가 발명가를 희망하겠으며, 어느 기업이 연구소 설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백삼당이란 말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특허가 얼마나 상품화되고, 얼마나 사장되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 통계기관에서 조차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특허분류(IPC) 표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포함)의 종류는 자그마치 6만 4천 2백3개의 그룹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만 7백3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등록된 산업재산권만도 6만 2천3백5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권리존속기간은 특허 15년, 실용신안 10년, 의장 8년, 상표 10년(10년마다 갱신 출원등록 가능)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 1~2>에서 보듯 산업재산권은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출원이 가능하다. 반대로

<표 1> 92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구분	권리	특허	실용	특·실 실계	의장	상 표		계
						신규	갱신	
내국	누 계	15,952	27,923	43,875	21,760	32,529	634	98,798
	전년동기	13,253	25,125	38,378	18,813	32,751	717	90,659
외국	누 계	15,121	742	15,863	1,188	10,444	1,517	29,012
	전년동기	14,879	770	15,649	1,284	10,312	2,832	30,077
계	누 계	31,073	28,665	59,738	22,948	42,973	2,151	127,810
	전년동기	28,132	25,895	54,027	20,097	43,063	3,549	120,736

<표 2> 92년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구분	권리	특허	실용	특·실 실계	의장	상 표	계
외국	전년동기	2,553	7,460	10,013	12,319	15,882	38,214
계	누 계	6,932	778	7,710	1,159	9,024	17,893
	전년동기	6,138	910	7,048	1,404	7,994	16,446
계	누 계	10,502	7,870	18,372	13,635	30,298	62,305
	전년동기	8,691	8,370	17,061	13,723	23,876	54,660

우리나라 사람의 외국 출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특허의 상품화율 및 사장화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증되고 남는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특허가 백삼당으로 불리우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라면 필시 그에 따른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다. 필자는 이 말의 근원이 일본에서 비롯되지 않으나 생각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세계 제일의 산업 재산권 출원국으로 연간 출원건수 1백만건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역시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 상품화율 의외로 높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89년부터 92년말 현재 등록된 산업재산권만도 21만 5천3백99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특허 상품화율은 의외로 높은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것도 믿을 만한 공인기관의 조사여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상품화는 「특허의 활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개념은 이미 권리화된 발명(특허)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 획득 이전에 권리를 위하여 출원중인 발명을 산업에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백 18건중 34.7%에 해당하는 2백84건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특허와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65.3%에 해당하는 5백34건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내용은 ①과거에 활용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활용이 중단됨(10.8%) ②다른 발명에의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함(6.4%) ③활용을 계획중에 있음(30.4%) ④전혀 활용하지 못함(17.4%) 등이다.

한편, 특허의 활용율은 35.7%, 실용신안은 32.7%(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개 나라만 실용신안제도가 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실용신안을 특허에 포함하고 있음)로 양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권리자별로는 개인 26.4%, 법인 45.7%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발명의 경우가 법인 발명보다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허의 활용방법은 개인 발명의 경우는 자신의 개인사업에의 활용비중이 높고, 법인 발명의 경우는 신규설비도입 신규 기업 설립에의 활용 비중이 높으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및 통상 실시권 허여의 비중은 개인 및 법인 공히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허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허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실용신안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는 결코 백삼당이 아님이 이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조사대상 특허가 8백18건에 지나지 않아 정확한 조사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특허는 이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34.7% 상품화는 결코 방관만하고 있을 수치는 아니다. 최하 50%는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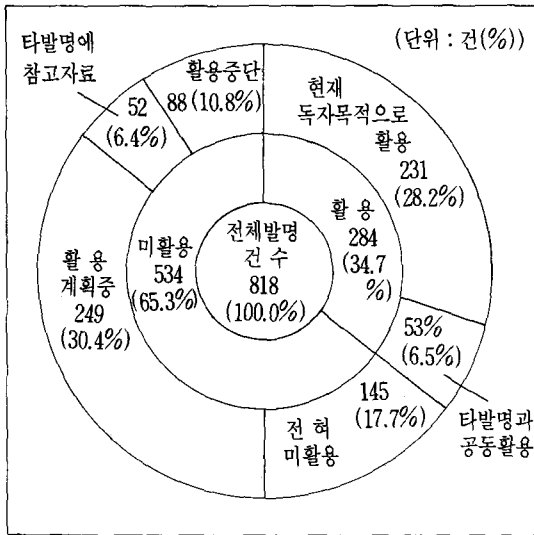
한송이 국화꽃이 피는 과정에도 소쩍새가 울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온갖 고통이 뒤따르는데, 한건의 발명특허가 탄생하는데 발명가에게 따르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 특허 사장 원인은 자금

왜 수많은 특허가 사장되고 있는가. 3백35명의 개인과 1백11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원인은 기업화 자금의 어려움(43.5%)과 시장성 불확실 등 경제성 파악 어려움(15.2%)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업화 자금의 확보의 어려움은 개

〈그림 1〉 국내 발명의 활용 실태



인 발명에서는 56.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법인 발명의 경우는 4.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당국의 정책방향은 개인 발

명의 경우는 관련자금지원확대에, 법인 발명의 경우는 시장성평가능력 강화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참조〉

### 특허 상품화 촉진방안

날로 늘어나는 특허의 사장화.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가 산업발진이 특허의 양산에 있다고 믿던 시대는 지났다. 양산 못지 않게 상품화에 역점을 두는 시대가 앞당겨 열려야 한다.

개인 4백66명과 법인 1백22개에 특허의 상품화 촉진 방향을 물은 결과 그들이 원하는 우선 순위 정책방향이 밝혀졌다. 〈표 4 참조〉

이제 개인발명가와 법인은 특허가 백삼당이라는 망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더욱더 새로운 발명에 매진해 주었으면 한다.

발명만이 자신과, 회사, 가정, 사회, 국가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디딤돌이다. 〈王〉

〈표3〉 특허의 사장원인

사장원인	유효응답발명수	시장경쟁성불확실등이유	기업화자금확보유	의업자재확보유	적합한생산물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의합자재확보유
구분	446	15.2	43.5	6.3	2.5	2.0	5.6	5.2	5.4	5.6	4.9	3.8	3.8	3.8	3.8
기유업권소별	289	13.1	41.2	6.9	2.1	2.4	6.9	4.2	5.2	6.6	6.8	4.5	4.5	4.5	4.5
권리자별	157	19.1	47.8	5.1	3.2	1.3	3.2	7.0	5.7	3.8	1.3	2.5	2.5	2.5	2.5
개인	335	10.4	56.4	5.4	3.0	2.1	2.4	2.4	3.3	5.4	5.4	3.9	3.9	3.9	3.9
법인	111	29.7	4.5	9.0	0.9	1.8	15.3	13.5	11.7	6.3	3.6	3.6	3.6	3.6	3.6

〈표4〉 특허 상품화 촉진방안

발명활동의 활성화		발명의 활용극대화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① 세계·금융상의 지원확대(76.8%)	① 좌 동(89.3%)	① 획기적인 재정지원제도의 마련(74.9%)	① 좌 동(68.0%)
② 발명진흥기금 등 보조금 지원 기구설치(71.2%)	② 좌 동(68.0%)	② 발명가와 투자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56.7%)	② 좌 동(49.2%)
③ 우수발명포상제도 확대(41.4%)	③ 기술정보 유통전담기구 설치(54.1%)	③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확대(39.9%)	③ 세계상의 혜택확대(48.4%)
④ 발명장려운동 확대(39.7%)	④ 좌 동(41.8%)	④ 세계상의 혜택확대(31.5%)	④ 발명품의 시장성 평가전담기구설치(36.1%)
⑤ 기술정보유통 전담기구 설치(37.3%)	⑤ 우수발명포상제도 확대(33.6%)	⑤ 발명품의 시장성평가 전담기구설치(25.1%)	⑤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확대(24.6%)
		⑥ 특허품의 우수구매제도의 정착(17.6%)	⑥ 좌 동(23.8%)

註 : ( )는 개인발명 466명, 법인 122개에 대해 위 5~6가지 방안중 우선적인 3가지를 선택케하여 중복응답처리한 백분율(%) 임.

## 환경마크 상품을 삽시다!



- ◇ 환경마크는 저오염상품에 붙어있습니다.
- ◇ 환경마크 상품을 사주는 것은
  - ◎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 ◎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길입니다.
  - ◎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 ◎ 기업체는 저오염상품을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